

제1부 — 고등학생편지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2부 — 중학생편지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제3부 — 국민학생편지
선생님 얼굴이 자꾸자꾸 생각나요

제4부 — 졸업생편지
선생님, 저희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값 3,000 원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 모음 1

선생님, 사랑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동광출판사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모음 1

선생님, 사랑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동광출판사

역사적인 5월 28일 그날 이후 150여 일.
교장·교감·주임 선생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집회 장소에 가기 위해 밤열차를 타면서,
전투경찰에 쫓기고 언어맞고 줄줄이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리고 뜨거운
7월말 명동성당 뒤뜰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섰다.
8월말 기어이 교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눈물로 돌아서면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교사들의 힘이 넘쳐나고
강인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교부에서 우리를 좌경의식화 교사라고
매도하고 있을 때도, 육성회 어머니들이
교실에서 끌어내고 교문 밖으로 팽개쳐
버릴 때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곁에서
응원하여 주며 깊이 신뢰하였다.
이제 겨우 글을 깨친 아이들이 서툰게
써보낸 글부터 중·고생 그리고 졸업생의
애뜻한 정과 의젓함, 정의감이 가득 담긴
글들이 커다란 산만큼 든든한 힘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었다.
—〈머리말〉 중에서

선생님, 사랑해요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 모음 ㉑

선생님, 사랑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동광출판사

머리말

참교육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인 5월 28일 그날 이후 150여 일 교장·교감·주임 선생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집회 장소에 가기 위해 밤열차를 타면서, 전투경찰에 쫓기고 얻어맞고 줄줄이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리고 뜨거운 7월말 명동성당 뒤뜰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섰다.

8월말 기어이 교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눈물로 돌아서면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교사들이 힘이 넘쳐나고 강인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교부에서 우리를 좌경의식화 교사라고 매도하고 있을 때도, 육성회 어머니들에 의해 교실에서 끌어내어져 교문 밖으로 내팽개쳐질 때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곁에서 응원하여 주며 깊이 신뢰하였다.

이제 겨우 글을 깨친 아이들이 서툴게 써보낸 글부터 중·고생 그리고 졸업생의 애뜻한 정과 의젓함, 정의감이 가득 담긴 글들이 커다란 산만큼 든든한 힘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었다.

“선풍기도 좋은 난로도 필요없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더 좋아요.”

“오늘의 헤어짐이 낡은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아픔쯤은 거뜰히 물리칠 수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 국토도 참교육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바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선 그 땅을 일구고 거름을 대느라 구슬땀을 흘리시지요. 그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세요. 선생님, 혹시라도 지치시면 뒤에 있는 저희를 생각하시고 다시 큰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전교조를 굴리는 수레바퀴에 기름을 넣어 주는 아이들의 편지글이 책으로 엮어졌다.

전교조의 결성으로 침묵과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교사들이 일어섰으며, 학생들 또한 참교육의 열망으로, 교육의 일주체로 자각하게 되었다.

이 땅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뿜어 내는 선생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전교조를 지켜 내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을 지켜 내려던 아이들이 정학·퇴학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와 선생님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이 편지글들이 참교육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보출판국

선생님, 사랑해요/차례

머리말 참교육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 5

제 1부 고등학생 편지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 9

제 2부 중학생 편지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 109

제 3부 국민학생 편지

선생님 얼굴이 자꾸자꾸 생각나요 · 157

제 4부 졸업생 편지

선생님, 저희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 185

제 1 부 고등학생 편지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기세 좋은 경찰서
신성하다는 법정보다
비록 빼앗기긴 했으나
저희들 걱정해 주고,
저희가 주인 될 미래를 걱정하여
힘껏 싸워 주시는
선생님이 더 든든합니다.

김밥 한 개로 배고픔이 달아날까

텅 빈 위장 속에서의 헛바람이 비좁은 강당을 가득 메울 때
김밥 한 개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 콘크리트 바닥에 열량을 빼앗기고
전경들의 위세에 긴장이 들어 타는 입 안에 수돗물을 벌컥 들이키지만
목마름은 어쩔 수 없어

— 어머니

당신 길을 떠나서
회사에서는 노동자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허울좋은 산업체 학교
주경야독 24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피곤해
원망도 많이 해보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녹슬어 가는 열일고여덟 청춘
지천으로 널려 있고
악마의 거미줄 같은
사회구조는
단단히 얽매어져
모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는 문을 굳게 잠그고
기숙사에서는 내동댕이쳐졌어

보따리 싸들고 들어온
시교위의 강당도 불안해
하루를 넘기기 무섭게
예측 못할 사태는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들은 지쳤어.
농성 23일째
아침에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애들이 부러워.

— 배가 고파요.
학교 앞 분식집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른들이
참교육이 행하여지는 교실이 그리워요.

9시간 노동에 14만 원 월급을
열심히 일하고 배우겠다는 의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장사꾼이
학교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관하는 저들이
몸서리치도록 미워요.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만이 나올 뿐인데
김밥 한 개로 배고픔이 달아날까?
아무리 속이 쓰려도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한
죽벌체제 폭력교사의 학교로
장사하는 상점의 고용손님으로
들어가기 싫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가 되는 길뿐.

1989년 5월 1일 <전국교사신문>에 게재

12 선생님, 사랑해요

충남 OO여고 3학년

빼앗긴 우리들의 선생님께 드리는 글

주인을 잘못 찾은 은빛 수갑이 선생님 손을 묶고
역시 뒤바뀐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선생님 모습을 보고 난 후 꿈 많은 저희들은
단정한 제복의 우리 오빠들 손에 들린 힘센 전경방패가
싫어서 두 눈 꼭 감아 버리고
무슨무슨 사상 무슨무슨 주의 어렵고 거창하게
쏟아 놓으며 어린 우리 가슴 놀래키는 그 목소리들이 싫어서
귀도 꼭 막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선생님은 무엇이 그리 안타깝고 답답해서
교단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겁주어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을까
선생님들의 아픈 몸부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선생님!
학교의 주인 된 살아 있는 모습으로 배우며 일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나 피동적으로 과제만 잔뜩 받아 가는
학교의 교문에 들어서서는 저희들의
지치고 재미없다는 듯한 표정이 맘 아프셨죠?

공부를 잘하는 학교든 아니든
은통 뺨쓰는 열기에 학교가 아니라 학원처럼 되어가는
학교에서 내노라는 우등생 아니면
어디 가든 열등한 모습 자처하고, 자학하며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13

자꾸만 거칠어지고
저희 반 어느 친구처럼
학교 오면 귀죽은듯 무작정 앉아 었드렸다
꿇다 따분히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의 풀린
표정이 안타까우셨죠?
아파도 이쁜 줄 모르고 슬퍼도 왜 슬픈지
누가 슬프게 한지 모르며
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반응 없이 따라 주는
저희들이 답답하셨죠?

저희들 자신과 선생님이 전부이고 왕(王)인
우리들 교실 안에서조차
선생님이 해야 할 소리,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것이 답답하셨죠?

앞자락 뒷자락에 온통 영어 글씨 찬란하게
새기고 다니면서
디스코 팝송에 생기 도는
저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과서가 걱정되었죠?

까마득한 유년 시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몇 번 불러 본 뒤
뭐가 그리 바쁘고 시간이 없는지
통일 노래 한번 가슴으로 불러 볼 기회도
못 가진 채 그냥 커가는 저희들이 안타까우셨죠?
그렇게 항상 안타까워하며
조금이라도 참된 마음, 진실을 가르쳐 주려 애쓰시던
선생님을 빼앗긴 우리들 학교의 교실, 교단은
서러움 가득합니다

선생님 못 오신 수업 시간에
대신 자리메운한 다른 선생님의 귀에 익지 않은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단식하셔 험췌해지셨던 선생님 모습
학교 오셔서 그 보고 싶어하던 저희들이 있는
교실에도 못 들어오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계신 선생님께
이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것이 안타까워
고개 숙여 울어 버리고
해임당한 우리의 선생님 길에서 만나
말문 막힌 채 악수 한 번 하고 나서
친구들 피해 저쪽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친구들 보며
저희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란 말입니까
옆에 동료 교사 해임당하고 쫓겨가는 때에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하고
복도에서 교실에서 학생들 감시하는
선생님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무엇을 배우란 말입니까

선생님
저희들은 기세 좋은 경찰서
신성하다는 법정보다
비록 빼앗기긴 했으나
저희들 걱정해 주고, 저희가 주인 될 미래를 걱정하셔
힘껏 싸워 주시는 선생님이 더 든든합니다

몸으로 싸우며 빼앗긴 교단에서
전해 주는 선생님들의 가르침 받은
저희들은
경찰관이 되더라도
양심교사 존경받는 스승 잡아가지 않는 경찰관

판사님이 되더라도
감히 우리의 선생님을 피고인석에 앉히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
참고 참으며 수업받는 우리들의 교실
우리들의 학교에
더 이상 함부로 쫓겨가는 선생님이
없도록
더 이상 저희와 같이
눈물 흘리는 후배들, 동생들이 없도록
힘껏 싸워 즐겁고 건강한 배움터 만들어 주십시오
아픈 마음 안은 저희들, 역부족이라면
눈빛으로라도, 가슴으로라도, 눈물로라도
선생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1989년 10월 12일 김양선 올림

홍천 00고교 3학년

꺼지지 않는 불꽃

파아란 가을 하늘보다도 더 높은
민족 민주 인간화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오늘도 피눈물을 조국땅에 흘뿌리는 우리의 양심이며!

군홧발에 짓밟혀도 오뚝이처럼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주먹을 불끈 쥐고 전진, 전진하는 우리의 등불이며!

손가락을 잘라 붉은 피를 내어
조국의 가슴에 들어부어 꺼져 가는 교육의 생명을 회생시키려는
민중의 길, 우리의 이상이며!

태양보다도 뜨거운 당신들의 양심, 등불, 이상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영원히 영원히 타오르리라.

1989년 8월 25일 전교조를 지지하는 지명규 올림

당당하게 노래하는 사랑

교단은
그렇게나 서기 힘든 곳인가 보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만을
입 안 가득 채운 채
단지 입시만을 위한 말과
입시만을 위한 노래와
입시만을 위한 웃음만이
허락되는 자유.

입시 외의 진실은
명청한 놈이 지껄이는 헛소리.
문득 떨어지는 빗소리에
노래 하나 읊조려도
“선생님, 진도 나가요”
여지없이 다가드는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

스승이란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은
부처님 가운데토막같이
근엄하고 우아한
권위적인 모습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들은
친구를 친구로 알아야 했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했고
동강난 국토의 허리를 안고
통곡할 줄 알아야 했다.

언제까지나
이유없이 빼앗기는 권리, 자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삶을 배웠고
가난의 이픔을 애기했다.

하늘같이 높은 스승이 아니래서 좋았다.
바로 옆에 선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가끔은 화도 내고
영똥한 웃음거리도 만드는
평범한 인간이라서 좋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곁에서 손잡고
함께 배우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좌경세력
사랑을 노래하면
의식화 교사

억지논리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돌팔매질당하며
입술 깨물고 소리없이 흐느끼는
처절한 몸부림 속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주먹을 꼭 쥐었다.

고집스레 고개를 끌어당기고
억센 손 더욱 세게 꼭 잡아쥐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사랑을 노래한다.

이은경 드림

OO고교 2학년

물통 속의 미꾸라지

얼기설기 섞여
숨찬 자맥질을 거둬하는
우리 같은 미꾸라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주인에겐 들판의 물통이
재 터를 잃고 징용된
미꾸라지에겐
강력한 최루탄처럼
목을 죄었다.

어제도 함께 자맥질을 하던
선생님 미꾸라지는
오늘은 물통에게 목이 졸려
할말 못하고
물 위에 고깃덩이로
둥둥 뜨고 말았다.

이 물통 안에서
우리가 할말은
저희는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제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물통 속의 미꾸라지지만
추어탕이 될 때까지
숨찬 자맥질을 거둬하며
선생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영원히 마음에 담고
살아갈까 합니다.

1989년 8월 20일 제자 올림

OO고교 2학년

모범생

어른들이 보는 모범생
평균 몇 점 이상
반에서 상위층
국·영·수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학생

이기주의자이긴 하지만
수학 잘하는 아이
어두운 곳에서 나쁜 짓 해도
국어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가
어른들에겐 모범생이다.

하지만 우린
영어를 못하지만
남을 위할 줄 아는 학생
수학은 못하지만
남을 칭찬할 줄 아는 학생

국어는 못하지만
남을 도울 줄 아는 학생

우리의 진정한 모범생.

1989년 8월 제자 올림

푸른 날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에는
선생님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한낮에 넓은 운동장에 서면
어딘지 모르게 비어 가는 가슴이
무언지 모르는 무서운 외로움, 슬픔으로 젖습니다.
터질 것 같은 교실 구석에 앉으면
세상엔 친구가 없나 봐요.
세상엔 나 혼자뿐인걸요.
선생님 속만 썩여 드리는 놈이지만
한여름 소나기 같은
선생님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를 겁니다.

1989년 7월 20일 민족의 아픔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학생 대자보

참교육의 그날 위해
우리는 맨주먹을 불끈 쥐고 넓은 어깨 한데 모아 힘차게
힘차게 일어난다.
너무나 긴 침묵을 깨고 이제야 목이 터져라 일어난 것이다.
민족의 혼을 앗아 가려는 일제 36년 식민지 교육에 끈질기게
저항했던 순결한 피의 향기를 아는가!
정권,
자신들의 부에 눈이 어두워 민족을 둘로 찢고 민중의 가슴을 찢는
정권에 뜨겁게 맞선 4·19의 뜨거운 가슴을 아는가!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오염되어 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해야 되는가?
선생님보다 먼저 일어서야 할 건 바로 우리들이다.
참교육,
그렇다.
이젠 우리의 것이다.
이전 우리들 자신을 통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들의 가슴에도 순결하고 뜨거운 민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느껴 보아라! 깨우쳐 보아라!
농민이셨던 우리 아버지의 가슴을!
노동자이셨던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1989년 8월 제자 올림

사랑의 대화로 종을 울릴 때까지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물 속에서는 하나라는 영원한 진리가 자리한대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 결합하면 조금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된다니 말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결과와 확실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답을 정해 놓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흑백 논리 중 흑의 논리에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건 불행중 불행이 아닙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건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염없이 쓰고 싶어요. 사회라는 곳이 내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정의사회, 복지사회 구현을 떠들기만 했지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인내 없는 정치사회, 약한 자는 늘 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구조의 모순 등이 말입니다.

선생님, 체육 시간에 참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되돌림 부호와 같은 반복뿐이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이니 기다려 보자. 너희들의 행동은 두 선생님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고 두 선생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오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19를 계기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노조의 움직임도 1년 반을 지탱했는데 선생님은 지금의 시간을 시기상조라 하십니까?

노조 선생님들께서는 단시일에 일으켜 보려는 폭염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선생님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단시일내의 개혁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10년이란 긴 세월을 앞에 두고 활동하십니다.

또박또박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러나 저의 얇은 지식과 감정은 눈물을 먼저 삼키게 했고 떠듬거릴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좀더 확실성 있는 어조일 수는 없을까요. 더구나 슬픈 것은 도중에 화젯거리를 돌려

버린 선생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의구심이 앞섭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옳은 걸 그르다고, 그른 걸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릇된 진리에 대항하시는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갈라진 입술 틈새로 쏟아지는 진실된 언어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게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힘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엉뚱한 규약으로 국민을 결속시키고 그 결속의 힘으로 저희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선생님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법보다 더 힘센 것이 있다면 여론이고 언론임요. 그러나 백성과 언론은 정부의 간교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방패로 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육체보다는 정신의 힘이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깨우침을 감사히 받았고 그 감사에 응답할 수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 저희를 위해 일어서신 선생님들께서 받으실 현실적 고통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선생님의 앞길은 어떠한 빛을 띄게 될는지요.....

선생님, 어떤 힘겨운 일이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좌절과 절망만은 말아 주십시오. 뜻을 함께하지 않는 동무들도 있지만 선생님과 뜻을 같이한 저희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동화책 속의 이야기 주제가 모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환상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버린 인간은 투명한 수정처럼 맑고 순수해진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전동기의 빛이 방안을 비추기까지 많은 동력과 여러 차례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며 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번의 방아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 보 전진을 위해 한 보 후퇴를 할 때입니다. 희망의 빛은 어두운 고개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고개를 넘기까지 지친 일꾼으로만 남아 있어서야 됩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차게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지만 여기서 중단해야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서신의 줄을 만들겠어요. 부족하고 엉성한 글줄기였지만 선생님의 상처받은 영혼에 안식의 미소

로 남고 싶군요.

정말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 주세요. 저의 가슴 속과 머릿속엔 선생님이 영원한 고3의 현대문학 선생님이요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참교육의 실천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끝없는 생각을 얘기 나눠요.

그때를 위해 선생님의 미소를 간직해 주십시오. 너무 긴 내용일 듯싶으나 아쉬움이 펜을 내리게 하질 않습니다.

선생님, 다시 뵈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989년 9월 2일 이상희 드림

슬픔과 고통 우리와 함께 나눠요

선생님,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쩌면 또 교원노조 때문에 설 새 없는 이틀을 보내셨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일 피곤하고 힘겨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서실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선생님에게 잘 해 드리고 싶은데 언제나 마음뿐이에요. 미안해요, 선생님.

교원노조가 생겨난 것도, 그리고 지금 투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정작 주인이어야 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내 스스로도 용기 없는 그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죄책감을 느껴요. 구로고등학교의 한 아이가 투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었다는 그 사실이 더욱 나를 초라하고 어리석은 아이로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과연 그였다면 선생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것을 과격하다든지, 어린애가 못하는 것이 없다든지 하고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애가 가없고 안쓰러워요. 누군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하기에 역사 속에서 작은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 보았던 내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되며,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고통을 수반하는 깨어남의 과정이라는……

그래요. 깨어난다는 것, 세상에 대해 눈을 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실로 깨어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내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노력해 보겠어요.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선생님, 우리들은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혼자만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들과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어요. 선생님의 아픔을 모르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괴로움을 모르는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어떤 최악의 상태에서도 선생님과 우리들 사이에 신뢰만 있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앞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얼굴만 마주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과 더 많은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 건강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돼요.

1989년 7월 2일 선생님을 사랑하는 화주 올림

바르게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현종 선생님께

오늘 아침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요즘도 늘 그렇게 바쁘신가요. 선생님과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로밖에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게 조금은 속상해요.

선생님께서 빌려 주신 (푸른 나무)와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글)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10년이 넘게 교육을 받아 온 결과 지금에 와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부정하고 싶었지만 해답은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억지로 공부했고 어떤 의무감에서 시험을 보았어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심한 불만과 반발을 느꼈어요. 난 왜 학교를 다녔으며 도대체 무엇을 배웠다는 것일까? 너무나도 의식이 없었고 무비판적이었던 내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자책을 했어요. 무슨 일이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키워 주셨고 어리석은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내가 무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난 집과 학교밖에는 몰랐고, 선생님들은 나를 암전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죠. 내 주위에는 나를 흔들어 깨워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커다란 슬픔이었어요.

고2때 담임 선생님은 자신은 성적으로 학생들의 성실도를 평가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의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일시에 무너짐을 느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밝고 깨끗한 것을 원했어요.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정말 구역질나는 말이었어요. 그

런데도 지금 그 선생님은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를 줄까요? 7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서로 움직일 틈도 없는 좁은 교실에 붙어 앉아서 선생님이 되뇌이는 대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기계처럼 수업을 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바른말을 하면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버릇이 없다느니,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느니 하면서 꾸중을 하시죠. 시험 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시험문제를 다 가르쳐 주고 우리는 그것만 외워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죠. 우리는 학생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고 학급회의 시간은 다른 수업이 되어 버리죠. 아침의 직원 조치는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복종만을 강요할 뿐이고 아이들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관심 밖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해야 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요? 우린 정말 학교의 주인이고 싶어요. 난 입시 때문에 공부할 하진 않지만 어느 학교의 어느 교실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린 정말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데 왜 어른들은 우리를 획일화된 주인의식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일까요? 그속에서 참다운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소외감과 불신감이 우리의 가슴에 쌓인다면 우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전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깨어 있고 싶어요. 바르고 참되게 살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훌륭하신 선생님은 더불어 생각할 수 있고 답답한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인생의 참의미와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모순투성이예요.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순이 쉽게 용납되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노점을 도시 환경정리라는 명분으로 철거시키고 얼마나 더 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법은 그들 위에 군림해야만 합니까? 그들은 땀땀이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정말 이 땅의 지배자들이 저주스러워요. 이것들이 '현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선생님이 빌려 주신 책에 나와 있어요. 전 그 말 속에서 저를 많이 반성했어요. 제 자신 너무나 무지하고 타성에 젖어서 곧잘 현실에 안주하

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지만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받아들이기가 벅차요.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려면 두려움이 앞서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까요?

조금은 겁도 나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제가 바르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걱정스럽지만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쓰러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어요.

1989년 7월 25일 제자 드림

아픈 만큼 성숙해지렵니다

답답합니다. 9일 70여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학교 떠나심을 막아 보려고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로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중단과 학교 폐쇄로 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그날 시위했던 우리들만의 책임인지, 아니면 위협으로써 어떻게든 학내에서의 소란은 막아 보자는 것인지 의도가 무엇일까요? 시위 중 몇몇 선생님들의 불 같으신 모습들, OO 바로 뒤에서 저희끼리도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신 어느 선생님의 음성, 교무실에서의 여러 선생님들간의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교조의 노선은 사회주의 노선이고 민중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민중교육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확 막히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의 여론 조작에 속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이런 말은 정말 당치도 않은 것이고, 신문을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처음 교조를 탄압할 때는 실정법 위반만 강조하던 것이 나중에는 사회주의 노선이니 용공·좌익이니 이렇게들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맨 처음 막을 때부터 사회주의, 용공·좌익으로 몰아붙일 것이지 하다하다 안되니까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수작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도 있다고 저희 자신이 스스로들을 위로했습니다. 좀 지치고, 너무나도 크고 단단한 벽을 느꼈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결국은 저희 자신이 참다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보충수업 중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바른 것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친구 아버님의 호통 치심도 받았고 해서 더 그렇습니다. 정말 제게는 진정한 용기가 없는 걸까요?

선생님께서 교단에 서 계시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랫가사도 있듯이 정말 아픈 만큼 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계속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헛된 껍질이 벗겨지고 참다운 민주와 참다운 교육이 깃들어지기를 바라며 그만 줄이겠습니다.

1989년 8월 10일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 준영 올림

무지무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침부터 내리쬐는 더위 속에서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겠다고 꾀 통 같은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교실 맨 뒤에 앉아 보고 있니..... 7월.31일부터 선생님의 국어 보충수업을 받는 날인데 선생님의 없는 자리를 다른 선생님이 메워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 막 우왕좌왕했어요. 선생님이 28일자로 해임당하신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교원 노조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신있게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부당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과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환경 개선 등.....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희는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남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로보트가 되어 버렸어요. 선생님의 부당 징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요즘은 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답답하게 웅크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 탈진상태에 계시지는 않는지, 신문에 단식투쟁하다 몇 분이 탈진상태라고 나오면 그 속에 우리 선생님도 포함됐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뒤에는 우리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직 순수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우린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잘 알고 선생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니까요.

5개월 동안 같이 생활해 온 교실 안의 텅 빈 의자와 책상이 주인을 기다리듯이 선생님의 자리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3학년 교실이라고 해서 교

실 환경마저 딱딱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화분을 갖다 놓고 꽃들을 길러서 지금은 보기 좋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방학이라 소홀히 해서인지 물을 주긴 했지만, 말라 죽어 버렸어요. 역시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가 봐요.

칠판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무지무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아마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이렇다면 다시 한 번 모여 인사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싶어요.
선생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1989년 8월 25일 제자 김은정 올림

우리의 소원 이룰 때까지

해마다 개학날은 별로 달갑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이지 두근거리는 맘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전부터 여러 선생님들께서 교실에 들어와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나가시고, 문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HR시간엔 회의도 못하도록 맨 앞자리에서 저희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와야 할 수학 시간에 낯선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경악하며 울었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마구 항의했습니다. 설 새 없이 우린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햇힌 진주보다 더 고운.....'

들으셨죠, 선생님?

그런데 왜, 왜 예전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우리 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못하셨나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반까지 올라오셔서 계속적으로 '법'을 강조하셨지만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저희들에게 계속 고 3이니 대학이니 하면서 슬픈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단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선생님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에 우리만이 내버려진 채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시나요? 선생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자들의 심정을. 그저 이렇게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누가 뭐래도 우리 반, 3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은 오직 선생님뿐이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 반을 사랑하시는 한, 우리가 선생님을 존

경하는 한 영원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 잊지 않고 계시죠? 우리 반 반창희 말이에요. 매년 3월 1일 명동성당 앞이에요. (12시) 그때쯤이면 지금의 일들을 생각하며 미소지을 수 있을까요? 후——

선생님! 비록 선생님과 우리가 이토록 처참하게 헤어졌지만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늘 맘속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제 뒷세대에게 말해 줄 겁니다. 언젠간, 아니 가까운 시일내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참교육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까지 선생님! 꼭 건강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희들과 손을 맞잡고 크게 웃어야지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민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지만 절 늘 지켜봐 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럼 선생님! 다음에 글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1989년 8월 28일 슬픈 개학날에 선생님을 엄청 사랑하는 제자 김현정 올림

추신: 선생님과 함께 한 '청년문화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애꾸눈 사이에서 정상인이 병신(?)

보충수업중 징계를 연기하고, 또 연기된 날이 되면 매번 선생님 자리를 확인 했었습니다. 보충수업을 마치면서 이제는 다행이구나 했었는데 그날 선생님께서 해임 통고를 받으시다니요.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선생님 성함이 호명될 때 이제는 조금 덤덤하리라 믿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점심시간, 정부의 탄압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저의 말에 두렵지 않다고, 이미 각오했다고 하시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교원노조를 설명하시던 진지하신 모습,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레 묻는 학생들 말에 유난히 크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시던 말씀이 새삼 눈앞에 그려집니다. 어린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까닭을 알기에, 그리고 선생님 사랑에 무심한 많은 아이들 때문에, 힘이 없는 저 자신 때문에 더욱 부끄럽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나면 이 교정을 떠나야 하는데 졸업장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와 선생님들 때문에 울 텐데, 왜 선생님과는 이렇게 먼저 이별을 해야 하는지요? 스스로를 책하면서도 다시금 펜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많은 분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까닭에 아직 누구에게나 크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슴부터 먼저 답답해 옵니다.

선생님, 가끔 역사는 무능한 정치인과 그저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 무심한 국민들 편에 의해 좌우되나 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배우면서 그저 자신들의 것만 지키려는 위정자들에 의해 얼마나 큰 외도를 했는지,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그들을 타하면서 스스로 그 시대의 사람이 되어감을 알지 못하나 봅니다.

장님 사이에서는 애꾸눈이 왕이지만 애꾸눈 사이에서는 정상인은 병신입니

다. 애꾸눈은 자기도 온전히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듯 이제 진정 진실된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나 어떤 일인지 대강은 압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이 너무 좋고, 그런 일들 속에서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지만 대가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저희들의 힘은 너무 작습니다.

시간이 가면, 아니 이 한 해가 더 깊어 갈수록 더 바빠져야 하는 손들 사이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늘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이 교단으로 오시겠다고 그리고 진정 참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일시에 비어 버린 선생님의 자리지만, 선생님이 저희를 기억하시듯 이 교정 모든 부분들과 시간시간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저는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전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던 이야기를 또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때쯤이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럼 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시대 선생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씨앗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1989년 8월 26일 강정화 올림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며칠째 비가 짙게 내리고 있어요. 아주 번덕이 죽 끓듯 하네요.

우리 반 아이들은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요. 아직 담임 선생님이 미정이라서 마음은 안정이 안되었지만 우린 어떤 선생님도 그저 선생님일 뿐 '담임'이라는 의미와는 엄청 다르답니다.

선생님! 며칠 전 체력장 연습 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다른 반은 담임 선생님께서 응원도 하시고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 반만 덩그러니 외롭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훌쩍훌쩍하면서 선생님을 얼마나 애타게 불렀다구요.

그리고 새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던 날은 친구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1학기 수학 시간을 생각하며 눈물을 툭툭 흘려 버렸다구요. 그 선생님께서 무척 당황해 하셨죠. 그러면 안된다 하면서도 자꾸 선생님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정말 싫었어요, 정말……

선생님! 소문 들으셨지요? 우리의 그런 행위가 선생님께 자그마하나마 힘이 되었음 해요.

저희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작은 몸부림인데 저희 반은 하루 종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불러 나가기도 하고 학생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잔소리 하시고 호통치시고……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더 큰 몸짓으로 오랫동안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창밖을 내다보면 선생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지만 전 기다리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1989년 9월 2일 사랑하는 제자 김현정 올림

전교조를 꼭 지켜 주세요!

오늘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셨을 선생님께 이 어쭙잖은 문안이 선생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는지 걱정을 하며 글을 써 내려갑니다. 전교조 파문은 커지고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억압세력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아 곧 밝아 올 새벽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흐리게 하는 것만 같은 가당치도 않은 걱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 앞에 의연하고 굳건하게 서 계시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모습이 자꾸 왜소해지는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자다가도 눈이 떠지곤 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따금씩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전강은 어떠한지, 하시려는 계획들이 요즘도 계속 난관에 부딪치지 않는지……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들뿐이지만 선생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그런 걱정에서 견디어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파면되신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전교조에 관한 한 애당초부터 폐쇄되어 왔던 3학년들도 오늘은 담담할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2학년 건물에서 울려 퍼지던 <스승의 은혜>, 맘속으로만 따라 불러야 했던 서러움. 이제 너무나 우울했던 하루도 참으로 허무하게 저물어 갑니다.

전교조 열풍으로 뜨거웠던 그 여름에 비해 이렇듯 조용한 학교 분위기가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있지만, 선생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동요들이 시춘기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열정이 있고, 참교육 실현의 그날에

대한 끝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친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저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양심 없는 교사들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몸으로 뛰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현실이 요구하는 인간 표본형이다 싶은 느낌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선후배로 구성된 독서클럽 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공부에서만 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인격체인가라는 사실도 깨우쳤습니다.

'우리 함께 풍물 한번 배워 보자'로 시작한 소모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풍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배우고 싶어했던가를 깨달은 순간, 열린 공간을 이용할 줄 모르고, 심지어 열린 공간의 존재마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열린 공간, 문화공간으로 좀더 많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 못하고 체제순응만 강요해 왔다고 생각하니 무척 화가 나기도 하지만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전교조를 지켜 주세요. 바라만 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알면서도 감히 선생님께 전교조 사수에 대한 발언을 드리게 되는군요.

앞으로도 계속될 많은 나무들이 버림받지 않는 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그 보호막이 돼주리라 믿으면서 선생님, 이만 펜을 놓을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1989년 9월 7일 제자 미애 드림

힘있는 모습이 제일 어울려요!

항상 제일 맑고 크게 웃으시던 선생님께

선생님, 여름 날씨답지 않게 시원한 날씨가 며칠째 계속됩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들레의 플라타너스들이 푸르다 못해 짙게 보입니다. 차라리 그만 시커멓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시원한 교실에 앉아 이렇게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언젠가 장마는 끝이 나고 맑은 햇빛을 하나 가득 가슴으로 받아 안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선생님, 양심 있는 교사, 참된 교사가 자리할 한 평의 땅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이 원망스럽고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나 밍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몇 년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선생님과 같은 분들께서 교단에서 어떠한 감시도 탄압도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3학년 1반에서 하신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뒤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록 큰 힘은 없다 하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생님, 예전과 같이 힘내시고 씩씩하게 활동하세요. 힘이 없는 선생님의 모습은 너무 안 어울려요. 뽀빠이처럼 힘내셔야 해요. 후방에서 격려를 보내는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선생님,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을 저희들은 끝까지 믿으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나약한 여학생, 눈물이나 질질 흘리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훨씬 강합니다. 선생님, 저는 3학년 4반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했어요. 그래서 3학년 4반에 자주 가서 떠들다가 선생님께 야단도 맞았었죠. 지금은 그런 꾸중을 듣고 싶어도 못 듣지만요.

선생님, 마지막 수업 테이프를 찾기 위해 친구랑 증산 장전 골짜기에 갔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대요. 하지만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그것쯤이야 열 번, 아니 백 번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시 돌아오셔서 그 테이프 같이 듣는 시간도 마련했음 좋겠네요. 저는 선생님께서 꼭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허울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땅은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단단해진다고들 합니다.

선생님, 글씨 홍보지 마세요. 그래도 쉬는 시간에 쓴 것이라구요. 모든 다른 선생님께도 꼭꼭 안부 전해 주세요.

1989년 8월 2일 이국희 드림

추신 : 선생님, 거미가 막 내려와요. 이젠 정말 거미집인지 교실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마산 00고교 3학년

찾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목요일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재빨리 컵에 우유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서셨어요. 그날따라 흰 머리도 더 많아 보이고 주름살도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았지요. 선생님께서는 미안해 하시며 우유 대신 한잔의 물을 마셨습니다. 동시에 교실은 “선생님, 제발 좀 드세요”라는 애타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선생님,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학교 교원노조 선생님들은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들은, 꼭 단식까지 해야만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왜 진실이 진실로 통하지 않는 세상인지 눈물 머금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죄스러워 밥을 넘기지 못했고, 직접 단식에 동참도 했었지요. 배가 고파 오고 속이 쓰리고 현기증이 날 때면 우리는 우리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선생님들을 생각했구요. 단식중에도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스승이고자 발버둥치시던 선생님들, 힘이 없고 다리가 떨리는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위치를 저버리지 않고 더 뜨겁게 수업을 진행했기에 우리들은 더 가슴 아파해야 했고 소리없이 소리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 선생님, 저는 처음에는 교직원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뜻이 몇 푼의 돈에 조작되어 있었고, 수업 시간에는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에 의해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노동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 속에는 정신이나 몸의 힘을 써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닐까요?

“선생님, 왜 실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꼭 교직원노조를 하셔야만 합니까?”

“교사는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 되는 예가 10월유신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고,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강요하는 수업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참스승이 되고자 합니다. 여태껏 교육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습시다.”

우리 학생들을 두고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한 이성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전교조 결성식이 장학사와 백골단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진실을 왜곡 보도하는 매스컴에서는 좌경·용공이니 의식화니 운운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희생을 각오한 선생님들의 애타는 심정과 열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돈의 노예도 아니고 좌경·용공 교사도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든 신문에서든 어디에서든 의식화란 말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도중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면 의식화 교사라 불린다”시며 당신들 가슴속의 말을 끝내 내뱉지 못하셨지요. 의식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르칠 권리와 알 권리를 가진 우리가 의식화란 단어 앞에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한단 말인가요? 새장 속의 새는 한없이 가엾습니다. 마음껏 창공을 날며 짹짹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가르칠 자가 가르칠 자유, 교단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새장 속의 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알 권리를 찾지 못할 때도 새장 속에 갇혀 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새라는 말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날 수 없다면 그것은 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 새의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새의 의미와 날개를 상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누가 우리를 새장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르치고 배울 우리의 권리를 앗아 가는 것입니까? 선생님들의 고통의 몸부림이야말로 진정한 새가 되기 위한 가열찬 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왜 정부는 한사코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몇천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교육을 실현하자 하는데 구속, 직위해제가 웬 말일까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인가요?

선생님, 여태껏 우리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문교부의 탄압을 보고만 있었

고, 선생님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 구로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투신사살을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문교부의 비양심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겁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분명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군사부일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떠나가는데 자식이 잠잠하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이제는 정말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늘 되뇌이곤 합니다. 스승을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의 모든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저의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진실된 교육을 뿌리내리고자 애쓰시다가 교단을 물러나야 하는 선생님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나의 아픔인 까닭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외면하기 싫어서 서명운동도 했었고, 차마 보내기 싫어서 유인물도 돌렸어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면서 선생님들 중 한 분이라도 정부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에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젖어야 했어요. 아무튼 방학중에도 정상 등교를 하는 학급이 있고 학교 소식이 궁금해 종종 학교에 들르는 후배가 있으며, 방학이 되어도 시골로 못 내려가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린 선생님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소리없는 절규의 몸짓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들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우리의 교단에 자유의 씨앗을 함께 뿌립시다. 그리고 쌤, 우리 졸업여행 같이 가요.’

1989년 7월 선생님을 존경하는 서귀자 올림

졸업식 때까지는 돌아오십시오!

존경하옵는 선생님 전 상서

한여름의 강렬했던 폭염도 한풀 꺾이어 제법 신선한 기운이 여기저기서 피어 오릅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벼베기를 했습니다. 한아름 한 손에 가득 쥐고 힘있게 낫질을 하면 자라락 하고 소리를 내는 노오란 낫알 위로 송알송알 맺힌 땀방울들이 똑똑 떨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수확의 기쁨으로 하여 한아름 들판에 쏟았던 노고가 그야말로 황금 들판 깊숙히 파묻히고 그때서야 저리던 허리를 뒤로 시원하게 젖히면서 비로소 농부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흙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넓은 논두렁에 자리를 펴고 앉아 어머니가 날라다 준 새참은 비록 된장에 시퍼런 풋고추이지만 부러질 듯 차려 놓은 잔칫집 음식보다 푸짐하고, 푸실푸실한 보리밥은 물 없이도 잘도 넘어갑니다. 한 잔 가득 따른 막걸리 한 사발이 마른 목줄기로 벌컥벌컥 넘어가면 곧 나타나는 취기에 흥조가 된 얼굴들은 더욱 건강하고 힘차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허리 굽혀 정신없이 낫질을 해대면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해진 바로 그 자리에 불그스름한 노을이 솟털처럼 길게 늘어지면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하나, 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집 저집 골뚝에서는 회색빛 연기들을 뿜어 올리고 골목에 널려진 고추며 토란잎이며 어젯밤 늦게까지 벗겼던 고구마 줄기를 훑어 모아 부대에 담아 넣고 덕석을 감아 한쪽 차양 밑에 쌓아 올리기를 끝마치면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퍼놓은 평상 위에 소담스럽게 담은 밥상을 올려놓습니다.

시원한 지하수 물로 등물 친 등이 오싹 소름이 돋지만 따뜻한 호박 된장국은 콧잔등에 땀방울을 엮고 맵니다.

모두가 잠든 밤입니다.

50 선생님, 사랑해요

이따금 사람 기척 소리에 지난 장날 사왔던 오리가 짙어대 정적을 깨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사랑하옵는 선생님, 몸은 저희 곁을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저희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칠판 앞을 왔다갔다하시며 열강을 하시다가 한 손에 손수건을 들고 땀도 열심히 닦으시던 모습을 언젠가는 저희들 앞에, 아니면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졸업식 때는 저희 곁으로 돌아와 58명의 아버지로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딸들에게 뜨거운 악수를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벼는 베었지만 제 머리는 온통 선생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날이었 습니다.

1989년 9월 10일 선생님을 사랑하는 오남 드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걸 보면 벌써 여름이란 계절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모든 일이 고생스럽다거나 외로움을 느끼실 땐 항상 선생님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가장 값지게 가르침을 주신 분,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처럼 자리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항상 진실됨과 참됨 그리고 광명과 더불어 성공과 재회란 행복을 주시길 전 오늘도 자비로우신 분께 빌겠습니다.

'뜻은 바람직하게, 실천은 정열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며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오늘따라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했던 곳, 선생님들의 그 뜨거운 정열적인 참교육의 현장, 그곳은 바로 살아 있는 교육이 웃음과 화합 속에 어우러져 맘에 흠뻑 젖은 구석구석까지 아름답게 보였고 정말 가슴 뭉클함과 코끝 찡해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학생들을 위해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내적인 마음의 큰 고통을 참아 내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과연 진정한 참교육가요 지식인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때때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도 이제 그 용기의 본질을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비록 먼발치에서 안타까워하며 그래선 안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사람이란 정말 한마디로 비인간적이고 비굴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남의 희

생을 간사한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혼자 아픔에 흐느껴 울 때 '왜 울까' 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것이었나보다' 하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안타까워하며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다정한 손길은 보낼 사람이 과연 이 사회에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선생님,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참된 일을 위해, 진정 누구인가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열심히 살자는 말 참 근사하게 들리죠? 나의 욕심은 좀더 버리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존경하는 분을 항상 생각 하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선생님의 활짝 핀 웃음을 꼭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꼭 재활원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1989년 9월 제자 올림

붓물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이름을 밝히지 못한 채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려야 하는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까지 금기시되다시피 해온 행동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전쯤에는 여러 학생들이 전교조와 관련한 유인물과 리본을 돌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학 이후엔 화장실과 복도 곳곳에 스티커나 낙서가 나돌았습니다. 또 얼마 전 등교길에는 학교 담벼락에 2학년 학생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페인트 낙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말을 들어 보면 그런 일을 하는 학생들이 이미 여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얼마 전에 나붙었던 스티커에는 '함께 가는 관악인의 모임'인가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처음 스티커가 나붙고 할 때는 웬지 생소한 것이라서 그랬던지 거부감이 느껴졌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읽어 보면서 무엇인가 문제의식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주로 학생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그로 인해 부당하게 무기정학을 당한 친구들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익명으로 해야만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나이나 성별, 직업 등 기타 모든 것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어째서 그 권리가 타인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입니까? 사회적 기득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밤길을 다닐 때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서 뭉쳐서 다니라고 말입니다. 불량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럿이서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모아 그 일을 잘 처리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약자들이 강자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권리를 누군가가 제약하고 처벌해 왔기 때문에 저들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이지요. 막힌 붓물은 언젠가는 터주어야 합니다. 아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끝내 막으려 한다면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 터져 밀려나올 것입니다. 저들에게 만약 자유로운 활동공간이 보장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당당히 나서서 얘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편으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이 사정없이 희생되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기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괴롭습니다.

말할 자유, 모임 자유를 요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마음과,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형님 같던 선생님들을 말없이 바라보는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힌 붓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을 사랑하는 제자 올림

진정한 인간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진실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 더위에 몸 건강히 안녕하십니까?

보통 무더위가 아닙니다. 저는 2학년 문과생입니다. 학기초 선생님에 대한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뻐뻐 마른 작은 키, 그리고 목소리마저 마른 듯한 “됐어, 됐어”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어쩌다 우리는 갈라져야만 됐습니까. 불행입니다. 사회가 모두 모순덩어리입니다. 정치가는 자기가, 제 당이 잘났다고 탁상공론만 하고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따라야만 합니까? 가진 자는 사치하고 없는 자는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와 권리주장이 쉼도할 뿐 책임과 의무는 어느덧 사라진 듯합니다. 이런 환경, 이런 사회 속에서도 진정한 참교육의 외침은 들려 왔습니다. 많은 선생님의 기대와 참여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고, 그 희생이 있어야만 얻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 물러설 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신념을 실천하는 모범교사로 칭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당국의 행정은 엉터리투성이입니까.

저는 전인교육을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진실로 토론하며 실험하고 다같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인간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전교조의 문제는 우리 교육 앞날의, 많은 선생님의, 우리 학생의, 나아가선 우리의 사회인격에 관계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가 선생님들의 징계로 끝맺으려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은 ‘투쟁’이니 ‘쟁취’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난무함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못난 것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교조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서로 부딪치는 것

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리석은 당국을 이해하시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희를 훌륭히 가르쳐 주십시오. 참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교조 결성은 적법하게 떳떳이 서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한다면요. 그래도 선생님의 신념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싸우십시오. 꼭 쟁취하십시오. 정말로 교단을 떠나시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아니라도 열심히 뛰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교조와 선생님은 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1989년 8월 몹시 더운 날 전교조를 지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과생 울림

추신: “내 이름? 내 이름 앞에는 수식어구가 하나 붙어 존경하는 박OO 선생님, 애, 내 이름이 뭐야?” “존경하는 박OO 선생님입니다!”

역사는 의로운 분들의 기나긴 여정이니까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하고 무관심했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가끔 혼잣말을 하는 제 자신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 반 년을 한 교실에서 알게 모르게 깊어 갔던 우리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정이 어느 한 순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신문이나 뉴스 등 각종 매스 미디어에 나도는 문제점들이 이 사회와 구성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들의 귀에 가장 많이 들려 왔던 것이 바로 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노조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따질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교부장관이 나 대통령께 잘했다 못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신박약아들과 지체부자유자들을 방문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이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그리고 참교육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도 밝은 웃음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설령 사회적으로 어떤 불만을 사고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들은 압니다.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해 온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학우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는, 우리들 배움의 장인 이 신성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떡하면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도 그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학생총회에서의 많은 함성들이 한뜻으로 통과됐을 때, 우리들이 몰랐던 '경상'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고 그 답답함을 홀로 안으로 삭이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간부들 뿐만이 아닌, 앞에 나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고 하는 산교육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희 반은 일찍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중요하셨고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혹시 저희들 때문에 선생님의 큰 뜻을 펴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방학중으로 미루게 될 때도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호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교원노조에 관계한 선생님들을 쫓아내려고만 하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섭섭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한술밥을 먹은 우리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그리 쉽고 냉정하게 해임시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허기진 몸을 이끌고 힘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뵈 때마다 머릿속에는 '정심의행(正心義行)'이라는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역사는 의로운 분들의 기나긴 여정이니깐요.'

1989년 7월 사랑하는 제자 정원갑 올림

왜 우리의 좋은 만남과 배움을 막으려는 겁니까

날씨가 꽤나 서늘해진 걸 보니 이제는 여름도 다 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뜨겁고 아픈 여름이었기에 그냥 이렇게 보낸다는 게 무척이나 허망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웬지 선생님이 뵙고 싶어지는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학교에 나오셔서 방학 때의 즐거웠던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선생님이기에 더욱더 뵙고 싶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배우고 느꼈던 것은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선생님과 저희가 그 좋은 만남과 배움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만 하는지 아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일부 매스컴이나 신문에서는 교원노조가 왜 일어난 수밖에 없었던가는 생각지 않고 교원노조의 불법성만을 내세우며 그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이 왜 불법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어느 색에 물든 폭동(?)이 아닌, 진정 교육계가 지녀야 할 참된 배움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라 알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압력에 무척이나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힘내세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참교육의 의지가 식지 않는 한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부의 탄압이 결코 무섭고 두렵지는 않다. 다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 교실에서 가르쳐야만 될 빛나는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다.”

1989년 8월 29일 참교육을 원하는 제자 정아 올림

60 선생님, 사랑해요

매일 두들겨 맞는다 해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주 어두운 밤입니다. 오늘은 2학년과 3학년이 모두 '참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리본을 달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의도 있었고 선생님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내포된 그런 말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학교는 발각 뒤집히고, 임원들은 교장실에 내려가 몇 시간 동안 싸우다가 오고, 아침 시간엔 어떤 선생님께서, 1교시 때는 학생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엄포도 놓고 달래도 보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셨지만 여전히 저희 가슴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고 임원들은 울고…… 암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업을 끝마치고 메기는 했지만 저희 가슴속에는 항상 달려 있을 겁니다.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은 선생님과 말투가 비슷해 아이들의 순간적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선생님 생각에 눈물짓는 아이들도 있었고 얼굴 표정은 어두움이 역력했어요.

지금이라도 커다란 교실문을 활짝 열고 선생님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들어오실 것만 같고 턱 문지르는 모습, 선생님의 그 커다란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뼈적 마른 몸에 키만 커다란 선생님하고 1시간만이라도 수업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상담도 하고 매도 맞던 그때가 좋았어요. 매일 두들겨 맞아도 선생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부디 몸 건강하세요.

1989년 9월 1일 양서경 올림

추신: 하나, 저희들 잊지 않고 사랑하길
둘,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건강하길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61

당당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몹시 그리운 분께

한밤이다 했더니 벌써 새벽이 되어가나 봅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서 그 옆으로 새털구름까지 보입니다.

사람들 사는 집들에 불이 없으니 동네가 훨씬 흰합니다. 오늘 밤엔 술 먹고 길바닥에서 소리지르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잠도 안 오고 해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고생하셨던 것도 까맣게 잊은 채 혼자 베슬거리며 이쪽 가서 솔깃하고 또 저쪽으로 풀러 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가끔 들려 오는 소리에 내뱉듯이 종알거렸던 게 다였습니다. 대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신도 뚜렷이 느낄 수 없었던 쫓대없는 나는 답답하기만 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도 듣지도 말자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철저히 도망가야지! 내 주위에 진정한 행동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워지는 건지 씨늘해지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동안 조금은 바뀐 생각들과 생활 따위로 매워 봐야겠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 밤 곁에 일그러진 달이 더 정답습니다. (여기까지는 17일 날 쓴 거구요.)

오늘은 당번날입니다. 좀 있다가 학교에 가야겠습니다.

요즘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5시 40분 정도 됩니다. 밥 먹고 어기적거리다가 6시 30분쯤 학원에 갑니다. 저녁때까지 자습실에 있다가 오후 5시 30분부터 수강해서 10시 2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저랑 늘 같이 공부하는 녀석은 정리하는 기분으로 공부하는데, 그동안 게을리했던 저는 가끔 모르는 부분이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그동안 피곤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며칠 전부터 기운이 좀 빠지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탓이겠지 하다가도 정말로 원기가 빠

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원찮은 친구였지만 그럭저럭 1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 보곤 하지만 무어라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그들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도 요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맛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과, 강자가 약자의 등을 치고 짓눌러 그들 위에 섰을 때 그 강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또 그들 중 그렇게 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강자들은 그를 비웃고 무능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를 그런 것이 의미의 맥락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억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식단계에서 이 의미의 그물을 풀어헤쳐 버린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구역질나게 썩어 문드러진 고깃덩어리를 볼 때 우리는 '더럽다, 속이 이상하다' 따위의 말로 그때의 심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사회 일각의 일부 부패층의 횡포, 비인간성, 남의 불행 위에 자기 충족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꼬락서니 들을 볼 때 역시 우린 '더럽다, 구역질 난다' 따위의 심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두 심상은 분명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 주체인 우리들의 내부에서는 비슷한 이미지로 떠오른다고 볼 때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비약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단단한 의미와 이미지들은 우리 생활 속에 억센 줄로 이어져서 모든 비슷한 상황을 연결합니다. 이 줄이 없다면 음악도, 그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작품을 보러 갔었습니다. 화랑이 옮겨져서 좀 이상했지만 대충 물어 찾아갔었습니다. 손가락, 아, 저걸 흙으로 구웠나? 가방, 종이…… 좀 당황했습니다. 뭐가 좀체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가방 모양은 약간 달랐지만 옛날 학교에 들고 다니셨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이 잘린 것 같은 손가락들은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처절한 듯이 작은 손, 큰 손, 긴 손…… 문득 정감이 갔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선생님 의도를 제가 몰라본다고 섭섭해 하셔도 전 더 할말이 없습니다. 아직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놈이니깐요.

한번은 옆에 앉은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어 잘사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도 있는데"——제가 한 이 질문을 스스로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당연하지!" 대답은 이었습니다. 전 또 둘러냈습니

다. 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교육기회가 정말 균등한가? 교육환경은 만족스러운가?” “그럼, 집이 가난한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건 일부가 아닐까? 학·군별 성적만 봐도 부유층이 월등한데?” “일부? 그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가난해도 노력하면 상승할 수 있지 않은가. 길은 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균등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모두 균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철저히 후천적이다.”

선생님, 전 노동이란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신석기 시대나 농경이 지배적인 그런 단순한 때인가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노동의 형태에는 너무도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신노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 측정, 진정한 의미의 정도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단순노동과 육체노동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왔던 것도 교실이라는 대상물을 내 노동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노동자로서의 기쁨으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단순적·육체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데도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뭉개 버리는 사회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이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인텔리들에 비해 단순·육체 노동은 상대적으로 경시해도 되는 걸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노동의 시초는 아무래도 단순·육체 노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의미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펍 깊은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이들이나 노가다를 하는 아저씨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의 일에 참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의식도 그 진정한 의미에 동감해야 서로 깔보고, 스스로 자기 일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동이든 경시할 수 없습니다. 또 노동이 그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민주’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하기 싫은 것이 노동이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노동의 의미를 실추시킨 겁니다. 위로부터의 착취가 아닌 스스로의 권리의 주장으로 서로 뭉쳐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는 모양이 안돼 보인다. 노동자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미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색이 짙고, 선생이라는 것을 어느 틀 속에 매어 두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려는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상상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도 해보지 않은 제가 지껄인 몇 마디 말이 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요즘 들어 알았지만, 단순히 노동의 의미만 좇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중은 무한한 의미와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을 깨칠 수 있는 강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업을 강조하신 것도 이것과 비슷한 뜻이겠지요.

쓸데없는 소릴 잔뜩 지껄였습니다. 그리 편하지 못하실 마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젠 자야겠습니다. 내일은 보강이 있다고 또 학원에 오라 했습니다. 이젠 기운을 좀 내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뻔한 얘길 했군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989년 9월 19일 진동 올림

추신: 부담 없는 답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의 뒤를 잇겠어요

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 지금도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잘 쌓이지 않아요. 금방 물에 녹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속이 상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저 녹아 버리는 눈처럼 35일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기억 속에서 녹여 버리고 있거든요.

저의 마음은 지금 무척이나 슬프답니다. 남들은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저의 지금 심정은 '이것이 과연 승리인가'라는 반문을 자꾸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아직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죽고 싶다는 크나큰 최악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책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의 생활과 학교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머릿속이 얼리고 설켜 털실 몽치를 형클어 놓은 것 같아 머리통이 날아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머리를 붙잡고 다닐 정도입니다. 맘에 들지 않는 관선이사, 교장 그리고 비교육자적인 선생님들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3년 전 먹은 송편이 뱃속에서 데모를 일으켜 버립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탓은 하지 않지만, 정말 제가 바랐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슬픕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저를 책상 앞에 붙들어 놓지 않습니다. 예전만큼이나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는데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안개같이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 각자의 공부를 찾으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전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구경해야만 하고, 또 설사 제가 책을 들었다 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과 사태에 대해 몰두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도 속이 상해 '학교는 어떻게 되든 나도 모르겠다. 나 혼자 설치고 돌아다녀 봤자 뭘해. 다 집어치우고 나도 내것이나 챙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 번의 눈물로 지워져 버리고는 또다시 저는 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신경은 조금만 써. 그렇지 않으면 공부해 가면서 일하면 되잖아."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제 성격이 아주 별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끝장을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23일부터는 중간고사였는데 그만 시험거부를 해 버렸죠. 이유는 제가 그 경위와 함께 조금 있다 설명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힐 일만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정도로 저의 학교가 어지러운데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마치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자신이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태도는 잘못된 일만 보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처럼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청문회나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그 대열에 끼고 싶을 정도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저의 눈이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지는 않았는지,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판단이 서면 너무 허탈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제겐 힘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며 어른이 되길 바란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뒤를 이어 옳은 일을 위해 사회의 커다란 모순의 벽에 구멍을 '뽕뽕'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어요.

저의 두 볼에 물기가 마를 날이 드물어서 슬펐지만 오늘같이 선생님께 부족한 글이나마 쓰는 날은 기쁩니다.

우울함과 딱딱함으로 가득 찬 제 마음속에도 아직은 따뜻함을 원하는, 그리고 작은 글씨를 모으는 작은 씨앗이 남아 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부족하고 황설수설한 글을 읽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래 데모 전에는 글을 잘 쓴다고 입상도 한 적이 있는데 데모 후에는 머리가 복잡하고 성질이 급해져서인지 글을 잘 못 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1988년 11월 25일 이해영 올림

결코 절망만은 하지 않습니다

서두도 없이 글을 올립니다. 큰일들이 이렇게 밀어닥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반응도 무시 못할 정도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선생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지요. 어느 곳으로 손을 뻗어도 잡아당겨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리고 하루에 열두 번씩도 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무섭고 억울합니다.

쉬는 시간이면 자꾸 교무실 앞만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안 계실까 불안해서. 오늘은 화장실에 가서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선생님을 도울 순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너무 무력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실장들끼리 모여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너무 짧은 생각들이 모여 행동 하려니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 철모르고 행동하다 선생님에게 도리어 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기도 하구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께 시원스럽게 얘기도 들어 보고 싶고,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걱정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니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절망과 한 분의 선생님으로서 신념이 겹친 모습은 저희에게겐 차라리 빛입니다.

선생님, 윤리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장마가 지는 건 언젠가 태양이 뜨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결코 절망만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7월 12일 제자 올림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셨으면……

요즘 같은 장마철에 평안하십니까?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시는지요?

이런 인사가 이상하지요? 저는 글로나마 선생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정이라고는 생각지 마세요.

3년간 선생님께 배우지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몹시 슬프고 비참합니다. 선생님이 저희들 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저는 한때 선생님을 몹시 미워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만 해도 어렸었나 봅니다. 경찰을 나쁘게 보시는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경찰은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 오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중립화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므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며칠간 국어 공부도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 경찰서 정보과장이라는 분이 사주시는 저녁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신 말씀에 저는 매우 충격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놓이시면서까지 그런 운동을 전개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식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몹시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합고사에 떨어졌지만 결코 OO고는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일, 천안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을 피해 다녔던 일이 모두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마냥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을 얻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선생들 모두를 저는 싫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모두 지위, 명성, 자기 실속을 차리기 위한 사람들 같고 잘난 척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요번 기회를 통해 말로만 듣고 보던 운동을 직접 보게 되면서, 참고

육에 힘쓰시려는 몇몇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번이나 선생님께 글썽 울리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지금에야 연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으로 인해 저를 무척 싫어하실 것 같지 뭐예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방학 동안 선생님은 뭘하실 건가요? 물론 뜻있는 일을 하시겠지요? 저도 나름대로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초실력을 다져야겠어요.

지난 토요일 하교길에 선생님네 반 아이 중 한 아이에게서 선생님이 방학과 동시에 교직에서 물러나실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푹 꺼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같이 그 소식을 들은 친구도 한숨을 쉬며 앞으로 무슨 낙으로 학교 가야 하나고 한탄하더군요.

선생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머릿속이 온통 선생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과 비록 대화는 못해 봤지만 선생님께 배웠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선생님의 뜻을 헤아려 줄 시대가 분명 올 거예요. 그때까지 더욱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야영수련 때 꼭 오세요.

선생님, 화이팅!

1989년 7월 20일 김선희 올림

논산 〇〇고교 2학년

함께 부르던 힘찬 노랫소리 들려 옵니다

오늘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앉아 계셔야 할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빈 의자가 더욱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뿌옇게 흐려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벙어리이기만을 강요받은 채 무조건 달려온 지난날,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그 땅은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허구와 기만 속을 헤매다 경쟁에 떨어진 친구들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는 모두 억센 손에 꺾여 있었습니다. 어느 교실에선가는 규칙적인 함성과 고통의 신음 소리가 들려 왔고 앞만 바라본 채 달려오는 지친 학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받치고 있는 하늘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힘차게 걸어가시는 선생님 뒤를 따라가 봅니다. 땅은 서로 부둥켜안고, 두 손 맞잡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땅 위에는 싱그러운 풀 냄새와 향긋한 꽃향기로 뒤덮이고, 어느 교실에선가 선생님과 함께 부르는 힘찬 노랫소리가 들려 옵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척이나 맑고 푸르롭니다.

그러나 교실로 눈을 돌렸을 땐 축 늘어진 학우들의 어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너머 선생님과 함께 가지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9년 8월 29일 화요일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제자 올림

못다한 수업 다시 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선생님 보세요.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제 책상과 의자로 돌아온 오늘, 뛰어가면 당장이라도 선생님을 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갔었는데, 창밖에서나마 뵈 모습이 건강하신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반면에 일찍 달려가서 인사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제가 의식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화', 우리의 역사와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것이 의식화 작업이며 본래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선생님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해 버리니 진정한 교육은 어디로 날아갔으며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고분고분하며 자기 자신의 확고한 생각과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줄 모르고, 슬플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학생들. 눈, 귀 모두 막고 오직 입시 전쟁터에 갇혀 경쟁만을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저희들의 삶을 인간답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선생님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니다. 진실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아닌지요.

6월 어느 날, 수요일 3교시 국민윤리 시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종이 울린 뒤 선생님이 들어오셔도 조용해질 줄 몰랐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1번부터 차례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을 들으시던 그날.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라고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 소식을 듣고 우는 아이도 있었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전 참으려 했던 울음을 왈각 쏟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잠자던 의식을 조금씩 깨우쳐 주시던 선생님. 무언가 늘 진실을 말씀해 주시던 선생님. 더불어 사는 세상, 인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참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과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죠. 정치 권력에 따라 이리저리 진실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어제와 오늘의 진실이 다른 이 사회, 그렇기에 어쩌면 사람들은 이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까지나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진실은 저희들 가슴에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겁니다. 또한 6월 어느 날 수요일의 윤리 수업은 결코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이 아닌,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는 압니다.

언젠가는 꼭 올 겁니다.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과 마주하고 못다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선생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늘 건강하시길 간절히 빌며 서투른 글이나마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1989년 8월 21일 선생님의 제자 신현정 올림